

국민경제자문회의-대외경제정책연구원**「한-중 통상협력 포럼」 개최****- 한중 FTA 추진전략 및 서비스업 협력방안 모색 -**
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22일(수) 14시~18시에 중국 북경 캠핀스키 호텔에서 「한-중 통상협력 포럼」을 개최함
-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경제의 현황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략적 한-중 통상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 -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시 열렸던 한·중 정상회담 이후 한·중 FTA 타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, 동북아 시대의 한·중 통상협력 방향, 추진전략, 분야별 과제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임
 - 아울러, 금융, 의료, 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임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한·중 FTA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
 -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

※ < 붙임 > 포럼 개요 및 주요 발표내용 요약

붙임 1

한중 통상협력 포럼 개요

□ 개요

- 목적 :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중국경제 및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, 전략적 한-중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
- 일시/장소 : '14.10.22(수), 14:00~18:00 / 북경 (캠핀스키 호텔)
- 주최 : 국민경제자문회의,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□ 프로그램(안)

| 시간 | 내용 |
|-------------|---|
| 14:00~14:30 | 개회사 및 기조연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회사 : 鄭衡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- 축사 : 玄定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李向陽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- 기조연설 : 李景台, 고려대 교수, 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|
| 14:30~16:00 | (세션1) 동북아 시대에서의 한·중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회 : 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술부 주임- 발표 : 李成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, 베인&컴퍼니 한국사무소(대표) 趙晋平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- 토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張建平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실 주임· 王玉主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區域협력연구실 주임· 徐溱教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실장 |
| 16:00~16:20 | 휴식 |
| 16:20~17:50 | (세션2) : 한·중 FTA 추진전략과 분야별 통상 협력 과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회 : 李景台, 고려대 교수, 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- 발표 : 鄭永祿, 서울대 교수, 전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공사 張燕生,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비서장- 토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何曼青 상무부 국제경제합작연구원 해외투자연구소 소장· 袁波 상무부 국제경제합작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부주임· 李政炯 한국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원장 : 산업 협력 |
| 17:50~18:00 | 총론 |

1. 한-중 FTA 추진전략과 분야별 통상협력 과제

-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

-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**FTA 연내타결**에 대한 관심 고조
 - 특히 '92년 한중수교 후 20여년 간 실물경제영역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온데 이어 **화폐영역에서도 협력이 다원화***되는 계기 마련
 - * 원-위안화 직거래 허용, RQFII(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,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) 자격 800억 위안 확보 등
 - 한중 FTA는 세계 2위 경제대국(중국)과 세계 9대 교역국(한국) 간 FTA라는 점에서 **동아시아 경제통합**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**TPP***와 **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계**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 - *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, Trans-Pacific Partnership) : 아시아-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

 - **한-중 FTA는 상품, 서비스, 투자, 지적재산권, 규범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**으로 민감품목을 배려한 **단계적 협상*** 방식으로 추진 중
 - * 1단계 :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 보호방식을 포함한 전반적 협상의 형식('13.9)
 - 2단계 : 합의된 협상형식을 바탕으로 전면협상 개시(추진 중)

 - 현재 13차 협상까지 진행하여 **22개 장**(상품, 서비스·투자, 규범협력, 총칙) **협상골격 및 위생검역과 관련된 합의 도출**
 - 향후 금융,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국 간 **애로사항과 양국 관계 발전방안**까지 타결해야 할 것
-
- 한-중 FTA를 단순 시장진출 확대 측면으로만 본다면 중국이 더 이득을 본다는 견해도 있으나, 세계 경제성장의 1/3을 담당하는 중국의 시장성과 아시아경제공동체 일원으로서 win-win 기틀 마련 필요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
 - 중국은 한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**한국시장진출 확대, 한국 교역 국가와의 우회거래기회 확보** 등의 경제적 이득 기대
 - 한국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**우리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기회 보장, 한중양국 공동개발 산업단지 성과 도출, 한국 내 위안화 역외시장 활성화**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

2. 한-중 비즈니스 협력 발전방향

- 이성용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(베인앤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)

- 한중 비즈니스 협력은 기존 제조업 기반 협력모델에서 서비스업 협력 확대 및 무역장벽 최소화단계로 나아가는 추세
 - 한중 교역은 제조업 중심의 수직적 분업체제*로 성장하였으나, 중국 내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교류관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
 - * 한국이 핵심부품·반가공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조립하는 체제로 평판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제조장비 등 제조업 중간재가 한국의 對中 수출비중의 약 70~80% 차지
- 금융, 의료, 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가 한중협력확대 유망분야
 - (금융분야) 최근 자본이동 자유화, 원·위안 직거래 등 금융거래장벽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전망
 - 중국은 자국 금융산업 성장 및 위안화 국제화 확산을 위한 테스트 베드(한국) 확보가 가능하며, 한국은 위안화 활용 다양성 증대, 한국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발판 마련, 교역비용 감소 등이 가능
 - (의료분야) 의료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은 의료수요 확보, 중국은 의료보급 확대 및 효율성 증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
 - 한-중 공동 협력병원 설립, 공동연구 및 협업 프로젝트,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
 - (물류분야) 동북아 복합물류 거점형성을 위한 운송체계별 전략적 물류협력으로 한중 양국의 무역물량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임
 - 한중 수송장비 및 운송단위 표준화, 내륙연계 교통시스템 구축, 공동 물류시설 확보,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분야에서 협력 필요
- 향후에는 신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 공동개발이 가능한 분야로 상호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